

광주 'AI 심장' 데이터센터, 산업 지형도 바꾼다

성과 공유 세미나…음성·자율주행 등 기술혁신 핵심 동력 자리매김
상용화·고도화 전초기지로…의료·법률 등 활용 전방위 확산 확인

광주 첨단3지구에 조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성능 컴퓨팅 지원(GPU)을 지원받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음성인식, 자율주행, 정밀 의료, 법률 서비스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기시적인 상용화 성과를 쏟아내며 'AI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 동구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지역 인프라 기반 컴퓨팅 지원 사업 테크(Tech) 세미나'

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막대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연구개발(R&D) 단계에 머물렀던 AI 기술들이 광주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만나 어떻게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졌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초거대 언어모델(LLM)이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있어 광주 데이터센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수 사례 발표에 나선 브레이인소프트 김동진 대표는 고해상도 스펙트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음성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기존 음성 인식 기술의 한계를 넘어 화자의 미세한 감정선을 분석하고, 여러 사람이 섞여 말하는 환경에서도 목소리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새로운 학습 구조를 완성했다"며 "이러한 고도화된 모델 학습은 광주의 고성능 GPU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기술적 진보가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최준원 교수는 이날 시각 정보 입력부터 차량 제어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 처리하는 '자율주행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보였다.

최 부교수는 "과거의 규칙 기반 시스템과 달리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켜 다양한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했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와 AI의 융합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 딥노이드 흥원제 팀장은 흉부 엑스레이(X-ray) 영상 정보와 환자의 진료 기록(텍스트)을 결합해 분석하는 '멀티모달 AI 판독 기술'을 소개했다.

홍 팀장은 "영상만 보는 것보다 진단 정확도가 월등히 높다"며 "실제 광주 지역 의료기관 현장에 적용해 성능 검증까지 마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슈퍼브레이브가 고령화 앤지니어는 제조 공정의 불량 검출이나 농작물 생육 관리, 보안 관제 등 다양한 산업군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또 비에이치에스엔 전혜주 팀장은 방대한 법령

데이터를 학습해 유사 판례를 찾아주고 계약서 내 독소 조항 등 위험 요소를자동으로 분석해주는 '법률 특화 AI' 솔루션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성과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지역 인프라 기반 컴퓨팅 지원 사업'의 결실이라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광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가 실현실을 벗어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꽂고 피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베이스캠프이자 글로벌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肯텍, 독일 기후영향연구소와 공동연구·인재교류 협력 추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肯텍)은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와 국제 공동연구 및 인재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肯텍은 이날 PIK와 연구 네트워크를 공식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IK는 복잡계 연구, 기후영향평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肯텍은 지난 2021년 PIK의 위르겐 쿠르츠 교수를 해외 초빙 석좌교수로 임용해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공동 행사 개최, 학생 및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구성과 자료 공유 등이다. 양 기관은 기후·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이 국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현대차·기아 '대한민국 기술대상' 3관왕 2025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 윤주영(왼쪽부터) 현대차·기아 관절로보틱스 윤주영 팀장, 오종한 현대차·기아 차량제어개발센터장 상무, 흥승현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상무가 각각 2025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 동탑산업훈장, 대통령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기아 제공>

광주시 출생아 수 증가율 두 달 연속 특·광역시 1위

9월까지 출생아 수 4878명

지난해 대비 7% 증가 회복세

통합돌봄·아이키움 정책 주효

광주시가 결혼부터 임신,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광주형 돌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출생률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최근 두 달 연속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5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482명)과 비교해 68명(14.1%)이나 늘어난 수치다.

광주시는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7개 특·광역시 중 1

위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를 놓고 봄도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4878명으로 지난해보다 7%(319명) 증가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또한 3분기 까지 4540건으로 전년 대비 8.6% 늘어 향후 전망도 밝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2514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광주다음 통합돌봄'과 '광주아이키움 2.0'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 150%에서 200%까지 대폭 넓히면서 이용 가구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2524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늘어난 규모다.

임신부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파견해 청소와 세탁 등을 돋는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올해 지원 인원을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두 배 늘리면서 10월 말 기준 1590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누렸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1시간간 늦춰주는 '10시 출근제' 도입 기업 지원, 아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등 촘촘한 그물망 정책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는 지원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 가구까지 확대해 사실상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신 여성 인구가 급감하기 전인 오는 2032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엄마와 아빠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배달앱 먹깨비·땡겨요 갈등

공정위 신고 접수 조사 착수

공공 배달앱 운영업체 먹깨비와 신한은행의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번졌다.

3일 공정위가 먹깨비에 회신한 문서와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신한은행이 먹깨비를 상대로 부당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 심사를 마치고 최근 사건번호를 부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먹깨비는 자사 핵심 기술 및 지자체의 협력 구상 등을 신한은행이 입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유사한 '땡겨요'를 내놓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한은행이 이런 식으로 먹깨비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허사로 만들었으며 소비자가 타사 결제 수단을 쓰지 않게 하는 등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것이 먹깨비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땡겨요는 신한은행의 독자적 기술력과 자본·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된 플랫폼이며, 먹깨비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론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력산업·고용 부진 대응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산업 육성 시급

한은 광주·전남본부 보고서

광주·전남지역의 고용 및 지역 주력산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고용 환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생산·수출이 감소하고,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지역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고용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타 지역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다. 이는 같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적게 발생한다는 뜻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분야 등 지역 경제 성장률이 지속 둔화되는 추세다.

고용 여건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은 타 광역시·도 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며,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하고, 청년층 등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층들은 감소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생산 부진이 뚜렷했고, 전남 역시 2022~2023년 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 등 주력 산업이 부진했다. 더불어 지역에서 '건설한파'가 지속된 점도 고용 불안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청년 취업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석유화학·철강 등 중화학 기반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친환경 제품 및 첨단산업용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융당국 'G마켓 무단결제' 사고 현장 점검

쿠팡 사태 '2차 피해' 불안감 확산

금융당국이 최근 유통업계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보 유출 등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과 함께 같은 날 G마켓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쿠팡뿐만 아니라 앞서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이 무단 결제 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 측은 해킹이 아니라 외부에서 탈취된 개인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며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마켓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원이다.

G마켓 측 관계자는 "내부망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로 도용·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고했다. 기프트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의 페인트 자회사인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여부 확인과 정보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점검에도 착수한 상태다.

쿠팡페이의 결제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보안·결제 사고가 잇따르며 대형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

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종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피 4000선 회복

코스닥 2년 4개월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1.37포인트(p) 오른 4036.30선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20일 이후 9거래일 만에 40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5.33p 오른 4010.26으로 출발해 장중 기준 4거래일만에 4000을 돌파했다. 이후 잠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오름폭을 기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03억원 순매수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으며, 기관에서도 7566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898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